

“국가와 고향발전에 열정을”

진안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정세균·안호영·김철민 당선자 참석



진안 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이 서울 용사의 집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 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이 서울 용사의 집에서 열렸다.

재경진안군민회는 정세균 당선자(서울 종로구), 안호영 당선자(완주·진안·무주·장수), 김철민 당선자(안산 상록을) 등 진안 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을 지난 25일 서울 용사의 집에서 가졌다.

이날 서경석 재경진안군민회장을 비롯한 향우 100여명과 이항로 진안군수, 이한기 군의회의장이 참석해 상쾌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했다.

서경석 재경진안군민회장은 “물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높은 곳을 향해 거슬러 오르지 않는다.”며 “6선 고지에 오른 정 당선자와 초선으로 당선된 김철민 안호영 당선자의 국회의원 당선은 개인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지역의 큰 경사스러운 일로 초심을 잃지 말고 국가와 고향발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6선에 성공한 정세균 당선자는 “진안군민들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도움으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고향이 지역구인 안호영 당선자를 중심으로 진안이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당선자는 “진안군민은 물론 향우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당선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울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고향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일은 꼭 챙기겠다.”며 “고향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철민 당선자는 “그동안 안산

호남향우회장을 거쳐 안산시장을 역임하고 오늘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모두 진안인의 응징된 단결력 덕분이었다.”며 “지역구는 물론이고 고향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이 3명이나 되어 어깨에 힘이 절로 난다.”며 “청정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쓰레기 3NO운동, 우렁이 농법, 미안산 개발, 부귀산 전문대 설치 등 여러 군정 현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대비 군,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

좌식을 입식으로·남녀 화장실 분리 등 진행 주방구조 안에서 보이도록 변경 신뢰성 도모

무주군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무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업소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억 8천여만 원(도비 2억 8천만 원 포함)이 투입돼 좌식을 입식 형태로 개선하거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또는 개수하고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주방 구조를 객석에서 보이도록 변경해 방문객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무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업소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억 8천여만 원(도비 2억 8천만 원 포함)이 투입돼 좌식을 입식 형태로 개선하거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또는 개수하고 남녀화장실을 분리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주방 구조를 객석에서 보이도록 변경해 방문객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황복숙 식품위생 담당은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개선 자금 중 80%를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236㎡ 규모의 사과를 이용한 유산균음료와 토마토발효고추장·쌈장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발효가공사업장을 구축했다.

장수군, 발효식품 육성 박차

농기센터 내 236㎡ 규모 발효가공사업장 구축

장수군이 발효식품 생산설비 구축으로 발효식품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과 추진하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236㎡ 규모의 사과를 이용한 유산균음료와 토마토발효고추장·쌈장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발효가공사업장을 구축하고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성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효가공사업장은 1일 3톤 정도 생

산할 수 있는 규모로 사과, 토마토, 고추 등 장수군의 우수한 농산물과 순창군의 발효기술을 접목한 사과유산균음료와 토마토발효고추장·쌈장을 대표상품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장수 지역 생산자 단체와 연계해 직접 원료를 구입하는 등 원재료 선정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가공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특별블리츠

무주군, 내달 24일까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 접수

무주군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전액 국고(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로 지원되는 것으로 차고와 단열, 바닥시공 및 기름·가스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가구별 평균 150만 원, 최고 250만 원 한도)한다.

대상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중·저소득)가 집수리 대상 제외)로 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읍면 민원·복지 담당에서 받을 예정이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권금성 장애인복지 담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삶의 질 또한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만경강 걷기대회 성황

완주군 만경강의 수려한 자연생태환경을 따라 걷는 2016 완주 만경강 전국 걷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재)대한걷기연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에 전국에서 1,000여명의 국민이 참석해 걷기 열풍 확산에 동참했다.

코스는 5km, 13km, 20km 총 3개 구간으로 20km 코스의 경우 완주군청 광장에서 출발해 봉동읍 구만리 ~ 만경강변 ~ 소양천변 ~ 용진을 상운리 ~ 용진읍 용흥리를 거쳐 다시 완주군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대회에 참가한 국민들은 만경강변길의 정취를 만끽하며 힐링걷기의 축제 한마당을 즐겼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6월부터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가능

완주군은 6월부터 지방세를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회에서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통합 ARS 전화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 자동화로 납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 전화납부시스템은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자동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조회된 금액은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및 가상계좌 안내 등을 선택, 실시간으로 수납할 수 있고 결제 확인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지방세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 백운면, 마을 표지석 단장

진안군 백운면(면장 황명선)은 지난 25일부터 5일간 마을 진입로에 설치된 마을의 표지석을 단장하기 위해 백운면 전 직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34개 마을 진입로마다 설치된 마을표지석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래고 흐릿해져 마을명칭을 알아볼 수 없는 표지석에 전 직원들이 직접 붓을 들고 페인트칠을 하고 주변 잡초까지 제거해 마을 입구마다 단장한 듯 깔끔하게 변신시켰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문 열어

강의실·다목적 강당 등 갖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가족친화도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완주군청사 뒤편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야외광장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전북도 행정부지사, 완주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등과 14개 여성단체 회원, 읍면 주민, 기관단체, 학습동아리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문화교육원 개관식이 열렸다.

가족문화교육원은 현 군청사 옆 유 휴건물로 2011년까지 구)전북북도 잠업사업소로 활용되었던 폐산업시설 4동 총면적 2천401㎡ 부지에 총사업비 23억6천만원(도비 5억원, 군비 18억6

천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본관은 연면적 1천757㎡로 사무실 3개소와 강의실 4개소, 다목적마루 강당, 학습과 교육을 통해 배운 재능과 기술을 주민과 함께하는 드림마당, 리셉션, 세미나, 작은 결혼식 등이 운영 가능한 가족홀 등 총 10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부설동인 행복조리관은 한·양식, 제과제빵 등 조리배움터와 CS(고객만족)교육실, 나눔 빨래터(대형세탁기, 건조기 비치), 창의교육실(음식장작 소) 등 총 5공간, 331.3㎡로 구성됐다. 이번엔 문을 연 가족문화교육원은

가족 역량강화 및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전문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여성 육아·복지·문화 서비스 허브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 간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교양, 문화, 취미, 직업 등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 최초로 문을 연 가족가치확산 원스톱 전문서비스 기관인 가족문화교육원에서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도시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행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화상담부
 063-430-2951